중앙일보 창간 50년 기념 기획

김종필 증언록 소이부답(笑而不答)

“JP는 역사다” - 살아 숨쉬는 JP의 증언은 거짓신화를 해체했다

김종필 증언록 笑而不答(소이부답)은 현대사 기록이다.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역사 비록(祕錄)의 창고에 있던 수많은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냈다. JP는 그것에 햇빛을 쬐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세상에 공개했다. 그는 잘못 알려진 현대사의 진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JP의 증언은 역사 기록의 무대에 긴장감을 준다. 근거 없는 현대사 논쟁, 왜곡된 신화, 굴절된 사건 기록들은 이제 수정과 재구성의 상황을 맞게 됐다. 중앙일보 ‘증언록팀’은 JP의 증언을 검증하고 확인했다. 증언록은 중앙일보에 2015년 3월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3회, 114회 연재됐다. 단행본으로 발행된 저서의 서문에 이어서 그의 회고 중 ‘새로운 진실’ 10가지를 전재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저자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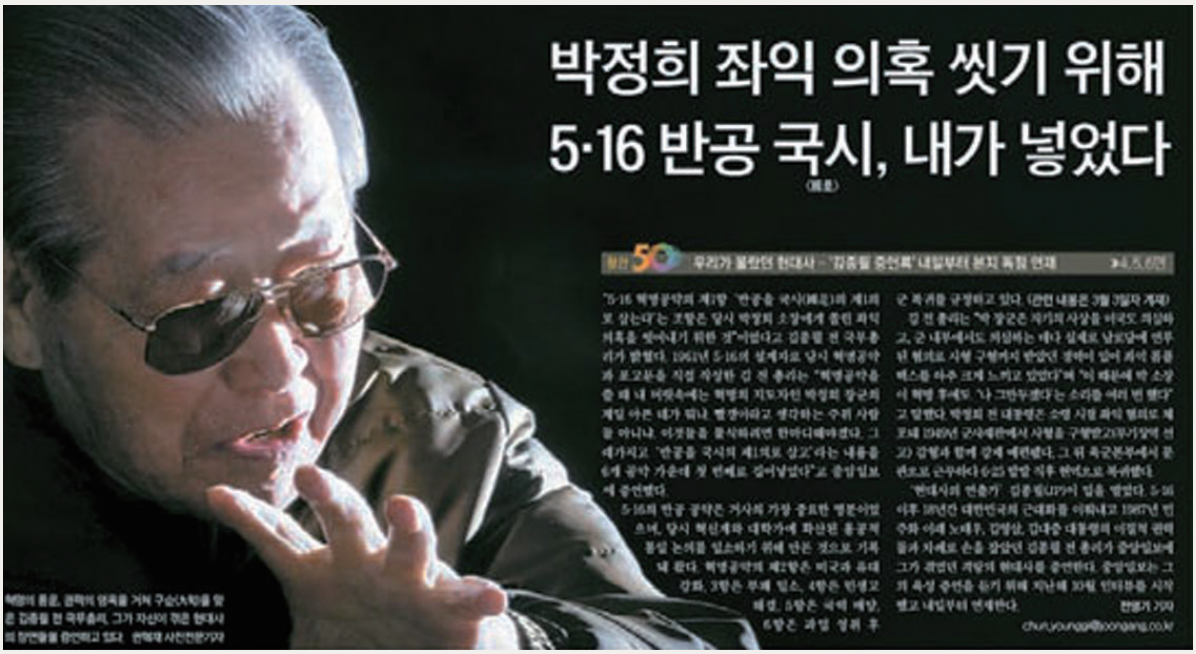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 만을 증언해

나는 회고록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회고록을 쓰라는 주변의 권유와 설득이 많이 있었지만 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 역시 인간인지라 여느 인물전기나 회고록처럼 자화자찬, 자기 미화와 정당화의 늪에 빠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해석을 입히는 것은 호사가나 역사가의 몫이지 목격자나 술회자의 영역은 아니다. 나는 역사를 재단하는 현자나 영웅인 척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굽이치는 현대사의 물결 속에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사실’ 만을 증언하고 싶었고, 그래서 ‘증언록’이란 이름으로 이 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2014년 지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는 1년 동안 매주말 서울 청구동 우리집에서 진행됐다. 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들추고 되새

▲ 책표지 오른쪽에 있는 저자의 서명과 낙관은 2008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오른쪽 수족이 불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어 필자가 이전에 썼던 서명을 복사하여 사용한 것이다.


박정희 좌익 의혹 씻기 위해
5·16 반공 국시, 내가 넣었다

김질하며 인터뷰에 응했고, 기자들은 왕성한 취재력으로 나의 기억력을 자극했다. 나의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린 과거로의 역사여행은 나로 하여금 그새 잊고 있었던 '나'를 확인시켜준 기회이기도 했다.

작년 3월3일부터 연재된 중앙일보의 '소이부답笑而不答' 증언기사는 11월 말까지 114회라는 장문의 글월로 독자 앞에 다가갔는데,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들었다. 이 연재기사를 가감없이 그대로 묶은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증언에는 나의 국가관, 역사관, 사생관이 다 녹아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의 증언에는 나의 국가관, 역사관, 사생관이 다 녹아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도자로 모시고 일으킨 5.16혁명은 새 역사의 분화噴火였다. 조국근대화의 비전이 결코 헛되지 않은 오늘, 온 국민의 피와 땀이 모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하면 된다'는 지도자의 결기와 사천만 국민의 세찬 각오가 어우러졌던 그 어제가 이런 오늘을 만든 것이다. 어제 없는 오늘은 없다. 뿌리 없는 열매는 결코 없다.

역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꺾이거나 휘어져도 정의를 향해 연면히 나아간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불의가 잠시 승昇하는 듯해도 종국의 승리는 정의의 편에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나의 증언록이 이와 같은 역사의 진리를 증명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올해로 내 나이가 만으로 아흔이다. 일제 강점기에 이 땅에 태어나 수다한 역사의 격변을 지켜보았다. 또 그 역사를 나 스스로 만들기도 했다. 내 이름 앞에 '풍운'이라는 수식어도 붙여졌다.

그러나 '구십이지팔십구비九十而知八十九非'라, 내가 아흔 해를 살았지만 지난 팔십 구년이 헛된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 없다. 50년 동안의 정치인생이 '허업'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